주장자 완벽하게 세우면 생활 편안

☞ 19면에서 계속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이 연결된 인연이다, 이 소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절을 잘 짓고 양식이 풍부해서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하고 성과를 이루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을 떼지 않는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살 때 물질로만 산다면 물을 보고 빠져 죽을까봐 걱정, 타 죽을까봐 걱정, 강도한테 찔려 죽을까봐 걱정, 도둑 맞을까봐 걱정, 또 좌천할까봐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물건을 보고 좋고 나쁘고, 죽고 살고 여기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혼백이 돼서 간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이득을 하나도 줄 수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하나도 갚을 수도 없고 살아서도 그렇거니와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보면 가다가 보는 대로, 야, 세상에 의식적으로 빠져 죽을까봐 걱정을 했으니 죽은 혼백도 가다가 말고는 넘어가질 못해. 승천할 수가 없어. 그러니 환상을 보더라도, 독사 소굴에 가면 독사한테 물려 죽을까봐 못 가지, 물을 보면 빠져 죽을까봐 못 가지, 불을 보면 타 죽을까봐 못 가지,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갈 길을 못 가는 거라.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가? 착 때문이고 물질을 보고서 그대로 의식화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놔라, 거기 맡기라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죽어서도 항상 넘어가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맴도는 거야. 사람 사는 데서, 가정에서 맴돌고 식구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말을 해도 몰라. 식구들은 아주 모른 척 해. 그 백짓장 하나 사이가 그렇게, 이승 저승이 백짓장 사이인데도 그렇게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렇게 모르는 그 사이에 그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봐도 본 체 안하고 이러니까 야속하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러느냐고 하면서 야!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는 한 대씩 때리다 보니까 가정이 불편하고 우환이 생기고 온통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착을 가지고 끄달려서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히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할지

문 스님, 올해로 칠십을 넘긴 보살입니다. 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되고 보니 병들고 쇠약해진 이 몸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을 때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관해야 할지 스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하옵니다.

답 보이는 세계의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음이 50%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세상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자기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겠죠.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그렇게 그 자부처한테 맡긴다면 불안한 마음도 한결 숙여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콩깍지가 덜 익었을 때는 뿌리가 성성하도록 하면서 익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익지 않아서 마르면은 아프고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저 모든 걸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뿌리에 물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 잎새도, 열매도 싱싱하게 익고, 그렇게 익어서 말라야 툭 건드리기만 해도 탁 떨어지고, 몸뚱인 몸뚱이대로 떨어지고 의식은 의식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살님이 염려하듯이 자손들 속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될 수 있겠죠.

아니, 내 몸뚱이한테도 이익을 못 주면서 어찌 공덕이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은 영원한 거고 내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몸뚱이는 항상 끌려 다니는 시자와 같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자를 끌고 다니는 주인에게 항상 그저 '당신만이 나를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맡기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데 아니,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를 쳐야 달구지가 가지, 달구지를 치는 데 소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기복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사고 매달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바깥으로 어디든 의지하려는 것은 모두 달구지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것이 진짜 실천하는 데에 소를 치지 못하고 바로 달구지를 치는 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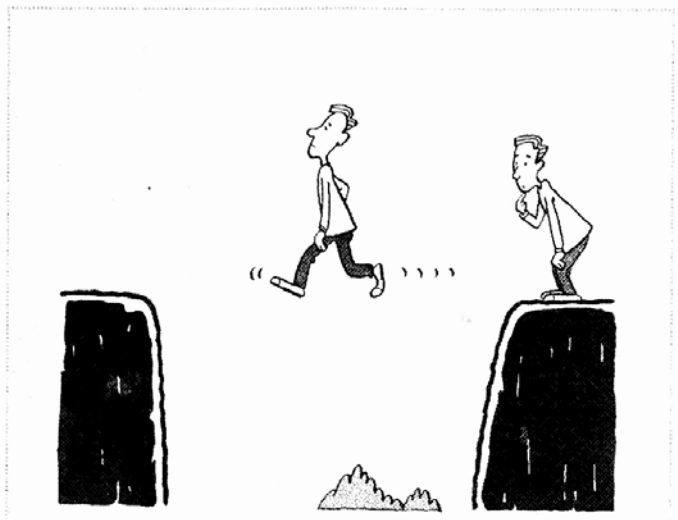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로만 살면 착에 얽혀 제갈길 못가
다가오는 안팎 경계 내탓으로 돌려라

세상에는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실천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애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럼 알 바가 있을 테니까요. 이 모두가 참 묘한 도립니다. 그것을 정말이지 알고 앞으로 갈 길이든 지금 가는 길이든 염려하지 마시고 깊고 진중한 믿음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마음의 길을 자유스럽게 나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관하는 방법따라 차이 있는지

문 관하는 방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관하는 것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로 마음이 안날 때는 '주인공, 당신이 봤으니 알아서 해'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너만이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잖아!'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급할 경우나 아니면 아플 때 '주인공, 낫게 해야 잖아. 그래야 심부름도 하잖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관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첫번째 경우처럼 관을 했을 경우는 아예 관을 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는데 바쁘면 빨리 가고, 시간이 좀 있으면 천천히 가고 그러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그렇듯이 바쁘다, 급하다 하고 판단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한 놈이 모든 것을 다하고 넘어가지, 어떤 다른 놈이 또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모든 것을 나오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도대로 대치하고 넘어가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높다 저것이 낮다라고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용도대로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으세요. 마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사단이 많고, 앞 걸음 뒷 걸음을 다 계산을 하고 가다가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 이전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관하는 것이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분별하면서 '너가 있으면 할거고,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한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하나하나 체험 해 나가세요. 그래야 내 안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렇게 체험이 되고 감응이 돼야 참다운 나의 보배를 발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차원높은 아기 갖고 싶은데…

문 저는 한 9년쯤 전부터 친정 어머님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주인공과 함께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결혼 4년 차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맞고, 차원 높은 인연으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처음엔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주인공이 알아서 좋은 때에, 좋은 아기가 생길 수 있게 할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너무 흐른 지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니, 이젠 남들이 말하듯 아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접어야 아기가 생기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답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 여러분이 아니라, 2세, 3세 내려가면서도 모두 자기입니다. 모습만 짧게 바꿨을 뿐이지 자기입니다. 자기의 육신, 피와 살, 뼈, 인과, 습에 의해서까지도 닮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형성시켰습니다. 뿌리 없는 뿌리에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여러분입니까? 힘 안 들이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형성시켰습니다. 사람을 하나 더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형성시킨 사람은 자기를 닮았습니다. 성격까지도 발가락까지도 부모를 닮았습니다. 이거 안 닮았으면 저거 닮고 저거 안 닮았으면 이거 닮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닮고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자기의 습과 부모의 습과 부모의 작용을 일체 닮아서 나와 가지고 사니 어찌 자기의 2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 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밥이 그렇게 자유스런 율동과 자유스런 무의 활용이 동시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미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고 옴이 없이 그대로 뿌리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는 연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자기 2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전화통을 돌리면 내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직속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묘한 법을, 만법이 다 마음 먹게 달렸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사 자식에게 일이 생긴다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활이요 자율적이요, 어딘가가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회전하는 대인의 활용이다. 그렇게 나간다면 자식들도 저절로, 일일이 말 안해도 저절로 물리가 터지는데 어떡합니까? 에너지가 그냥 발생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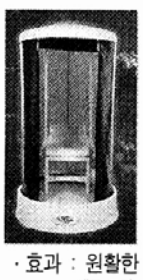
임신할 때도, 공자 어머니가 "의지가 약하고 넝마 같은 영은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을 나한테 심어주시오"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영을 고를 수가 없어. 6년을 골라도 고를 수가 없다가 7년 만에 골랐다는 얘깁니다. 공자를 고르는데, 6년을 임신을 할려고 다녀도 임신이 안돼서 "왜 안됩니까?"하면 "아직 고르지를 못했느니라." "네가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하도 속상해서 6년 되던 해에는 안 갔는데 7년 되던 해 초에 꿈에 "얘야, 인제 골랐으니 오너라"이러거든. 그래 갔는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난 것이 공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스러운 겁니다. 우린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해서만이, 내가 원력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자줄과 내 전자줄이 맞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원력이요, 내 원력이 둘이 아니니 바로 둘 아닌 한마음이기 때문에 불이 밝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만 낳는다고 해서 또 어린애 낳았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흰 백 뿌리 자체가 아주 차원이 높아야, 높은 영령을 아이로 맞아야 정말이지 빛나는 생애입니다. 속도 썩이지 않을 거고, 효도도 받을 거고 빛도 날거고, 나라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 어머니가 칠년을 기다려서 공자를 낳았듯이 말입니다. 잘못 들어온다면 맡이 안되죠. 선종(善種)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셔야죠. 이왕지사 낳은 분들도 마음을 서로 썰물 밀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열심히 관해서 자꾸 거기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하면 자연히 넓어지죠.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말고 더 열심히 관하면서 믿고 맡기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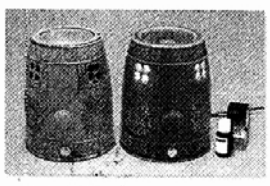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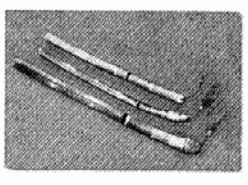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전문 쇼핑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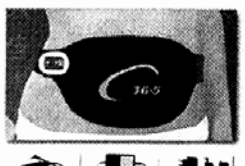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大, 뿌리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玉(옥) 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Dr.반다시(의자용)방석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갈대 5인다기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겉모습의 화려한것보다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형태입니다.
· 가격 : 80,000원

● 갈대 쥬스 잔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